

건강칼럼

“우상 복부 통증·발열 지속땀 급성 담낭염, 즉시 병원가야”

담석은 쓸개즙 구성성분 중 일부가 단단한 결정을 만들고 점점 크기가 커져 형성되는 물질이다. 주로 담낭 내에 생기지만 담낭관 혹은 총담관에 생길 수도 있으며, 위치에 따라 통증의 양상도 다르고 치료도 달라진다.



이재민

고려대 안암병원 소화기내과 교수

그러나 담낭의 담석이 담낭관으로 이동해 담낭관을 막게되면 심한 복통이 발생하는데, 이런 통증을 담낭산통이라고 한다. 보통 식후에 악화되고 증상이 위염이나 급제 등과 비슷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방치하기 쉽다.

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급성 담낭염은 성인 급성 복통의 원인 중 하나로 염증 악화로 인한 과사성 담낭염이나 천공에 의한 복막염이 합병될 수 있어 우상 복부 통증과 발열이 지속되는 경우 즉시 병원을 찾는 것이 좋다.

염, 패혈증을 유발할 수 있어 빠른 치료가 필수적이다. 평소 자신에게 담석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경우 증상이 없더라도 주기적인 추적 검사가 필요하다.

행성 담도조영술), MRCP(자기공명 담관촬영술) 등이 유용하다. 총담관 등의 간외 담관에 있는 담석은 특수 내시경을 이용한 ERCP 기술을 통해 수술없이 내시경 시술로 대부분 제거할 수 있다.

*출처 : 메디소비지뉴스 (http://www.medsobiznews.com)

기고문

가정폭력, 더 이상 집안의 문제만이 아니다

‘가해만사상’이라는 말이 있다. 가정이 화목해야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진다는 말이다. 아침에 가족과 다투고 출근을 하면 하루 종일 기분이 짹짹하고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 경험, 누구나 한번쯤 해봤을 것이다.



이지원

남원경찰서 경무과 경무계

해자는 특수상해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 되었다. 이와 같이 어른들의 가정폭력은 어린 학생들에게 정서적학대로 이어져 아이들의 정서에 매우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게 된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미 캘리포니아주 “경찰관 총기발포 엄격 제한”



개빈 뉴섬 미국 캘리포니아 주지사(가운데)가 19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 새크라멘토에서 경찰관의 총기발포를 엄격히 제한하는 392호 법안에 서명한 뒤 이를 들어 보이고 있다.

전주매일 독자 여러분의 의견이 담긴 기고와 투고를 기다립니다. (우)560-912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568-80 송주빌딩 4층

사설

탄소산업 위해 정부에 지원 요구해야

전북의 탄소산업을 위해 정부의 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여론이다. 전주와 완주에 137개의 탄소기업들이 있는데 일본과의 경쟁을 위해서도 전북도는 합찬 행보를 보여야겠다.

마음 든든한 것이 아닐 수 없다. 전북도와 관계자들은 이제 탄소산업의 고도화를 위해 뛰어야 한다. 일본으로부터 벗어나고 동시에 탄소산업을 꾸준히 성장시켜야 하는 것이다.

새만금 신항만 건설 프로젝트 추진에 힘내야

새만금 신항만 건설 프로젝트 추진에 힘내야겠다. 지역발전이 항상 중심 주제가 돼야 한다는 이 야기다. 이 말은 전북도에게만 하는 게 아니다.

사감해버린 것이다. 전북도는 가만히 있을 일이 아니다. 기획재정부가 비협조적으로 나온다면 새만금 신항만 건설은 또 그만큼 지연될 터이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